

소외 없는 일상에 ‘점점더’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휴대용 점자 프린터 ‘점점더’로 창업에 나서는 ‘모어앤모어’ 창업팀은 스스로를 ‘점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모인 청년들’로 소개했다. 해당 창업팀은 ‘2020 KHU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2020 생활발명코리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우리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이를 지원했다.

모어앤모어의 아이디어는 시각장애인들이 생활공간에서 점자로 제공받는 정보가 적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점점더’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점자 라벨기다. 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동으로 점역이 이뤄져 비시각장애인 역시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다. ‘점점더’가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잇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어앤모어의 박민희(국어국문학 2018) 씨는 “시각장애인에게 불친절한 일상임에도 ‘시장’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본래 ‘생활발명코리아’의 지원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1차 시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캠퍼스타운 사업단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다른 창업자들의 조언을 얻고 싶다는 같증 때문이다. 박 씨는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지원을 받으며 모의 IR(investor relations)을 통해 전문가 앞에서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다”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제3자의 시선으로 사업 아이템을 살펴보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직접 연결해 주기도 했다”며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대학생 창업팀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모어앤모어는 동대문구 내 소상공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점자 메뉴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현재 2차 시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모두에게 친절한 일상’이다. 끝으로 박 씨는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일상의 장벽 한 칸만큼은 낮추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삼의원이 이문혁신창업센터로 전환된다.

(사진=이현정 기자)

‘잠자던’ 삼의원 기숙사 ‘창업공간’으로 탈바꿈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기숙사 삼의원이 지난 학기 입사생을 끝으로 ‘이문혁신창업센터’로 탈바꿈한다. 이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에 의한 교내 기숙사 용도 변경은 흥릉 바이오·의료 창업센터로 운영 중인 행복기숙사 C동에 이어 두 번째다.

삼의원 내부에는 창업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에는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지역 상생 오픈랩이 마련되고 1층에는 화상 회의실, 방송·포토 스튜디오가 조성된다. 미디어 시대에 맞춰 영상 촬영과 제작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오픈랩과 스튜디오 등은 공유 오피스로 개방된다. 선정된 창업팀이 아닌 경희 구성원들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2층부터는 기숙사 시설을 리모델링해 독립된 사무공간을 마련한다. 캠퍼스타운 사업단에 선정된 창업팀은 각 층의 사무공간에 입

주한다. 또한 공용 시설인 회의실, TangBisil, 수면실을 제공한다. 이문혁신창업센터 오픈은 빠르면 7월 1일, 늦어도 2학기 개강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창업 팀 모집에 195팀이 지원할 정도로, 폭발적인 창업 수요를 돕기 위해선 공간 마련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대략 600여 명이 창업팀에 지원했다. 이 중 300여 명은 우리학교 학생이다. ‘점점더’를 발명한 창업팀 또한,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휴대용 점자 라벨기’라는 창업안을 진행했다(좌측 기사 참조). 해당 창업팀은 ‘2020 KHU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특허청과 한국 여성발명협회가 주최한 ‘생활발명코리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링크’ 팀은 개선된 기능의 NFC 태그를 개발해 입주 두 달만에 네이버, 이랜드 등에게서 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작년 하반기 캠퍼스타운 전체 창업팀은 대략 4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뚜렷

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비 100억을 포함해 총 486억을 투자받은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개발’과 우리학교 사업을 연계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사업의 투자유치가 확정될 당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이 대학연계 창업의 새로운 혁신모델이 되고, 흥릉 바이오, 경희대 캠퍼스타운 사업까지 연계돼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창업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창업 센터 설립에 따라 우리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행복기숙사 아람원 완공 이전인 19.2% 수준으로 떨어진다. 캠퍼스타운 사업단 장식원 계장은 “노후화된 삼의원은 기숙 공간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계장은 “전기시설 사용연한에 만기가 다가오던 상태”라며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보조금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삼의원을 통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삼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입주신청자가 줄어 발생한 공실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학기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던 A 씨는 “삼의원에 합격했었지만 타 기숙사에 비해 시설이 좋지 않아 기숙사 입사를 망설였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결국 삼의원 입사를 취소했다. 2020학년 1학기에 삼의원에 거주했던 홍소빈(국어국문 2020) 씨는 “삼의원 내에 거주하는 인원이 적어 거주하던 층에 빈방이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 대학과 지역 상생 성장’을 목표로 지난 2017년 발표했다. 대학가에 청년 창업 거점을 마련해 주민 대상 교육과 상인 역량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각 대학이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 관련 제안을 작성한 후, 서울시가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학교는 작년 11월 행복기숙사 C동을 흥릉 바이오·의료 창업센터로 용도 변경하는 한편, 교내에 창업 관련 공모전을 여는 등 이 사업에 합류해 있다.